



보도시점 2024. 8. 4.(일) 11:00
8. 5.(월) 조간

배포 2024. 8. 2.(금) 16:00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둔화세

*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 (3월) 13.1% → (4월) 12.0% → (5월) 9.8%
→ (6월) 7.3% → (7월) 6.2%

- 폭염, 태풍 등 추가적인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 필요
- 무·배추 선제적 방출, 재해 피해 신속 복구, 제철 과일 판매촉진 등 추진
- 추석 성수품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산물 재해 피해 및 대응, 수급 및 생육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7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하여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채소류는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특성상 전월보다 6.3% 상승했으나, 집중호우 및 폭염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6% 하락하였다. 제철인 복숭아와 참외는 전월보다 각각 24.5%, 24.2% 하락하였으며, 사과는 7월부터 햇사과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조생종이 출하되고 있는 사과는 향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현재 전년 생산 물량이 유통되고 있는 배는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햇배 출하가 시작되는 8월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 상황이 양호하여 전월 대비 1.5%, 전년 대비 2.2%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년보다 각각 2.0%, 2.9% 상승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22년 9월 정점 이후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 * 7월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농축산물) 1.2/6.2, (농산물) 0.9/9.0, (곡물) 0/5.7, (채소) 6.3/△1.6, (과일) △2.0/21.0, (축산물) 1.5/2.2, (가공) 0.5/2.0, (외식) 0.1/2.9
- *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률(%) : (4월) △2.5 (5월) △1.5 (6월) △2.2 (7월) 1.2

이번 수급 상황점검 회의에서는 여름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배추 등 채소류 수급 상황과 폭염 등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관 주재로 지역별 재해 대응, 수급 및 생육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장·차관 중심의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로 확보한 무·배추 가용물량 2만 8천톤(무 5천톤, 배추 2만3천톤)을 방출하고 있으며 부족 시 최대 일 300톤까지 방출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배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7월말부터 대형마트에 직공급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추와 깻잎은 복구 및 재정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8월 중순에는 공급량이 회복될 전망이다. 수박은 8월 중하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숭아, 포도 등 공급이 안정적인 대체 과일의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한 생육관리, 폭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폭염 대응 요령 문자 메시지(SMS) 안내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위한 상생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입 조건이 완화된 E-9 제도에 대한 외식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식협회 등과 함께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며, 추석 명절도 다음 달로 다가왔기 때문에 농식품부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 모두가 물가 안정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덧붙여 “다가오는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성수품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수급총괄)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서기관	김민호 (044-201-2681)
			사무관	김성만 (044-201-2685)

